

중국출장 결과보고(중국 귀주성)

보고자: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박경철 책임연구원

I. 출장 개요

1. 방문 목적

- 2018 생태문명귀양국제포럼 참석 및 발표
- 생태문명귀양국제포럼의 운영 현황 및 논의 내용 파악
- 충남연구원-귀주성사회과학원 간 학술교류 협력 강화 등

2. 방문 기간, 방문지, 방문단 구성

- 방문기간: 2018년 7월 5일(목)~10일(화)(5박6일)
- 방문지: 중국 귀주성 귀양시(貴陽市), 흥의시(興義市)
- 출장자: 박경철 박사(농촌농업연구부), 정옥식 박사(환경생태연구부)

3. 주요 일정

일차	월/일	시 간	내 용	비고
1일	7월 5일 (목)	12:55→13:55 16:30→19:20	인천 → 상해시(MU5042) → 귀양시(MU5445) 귀양공항 → 숙소	귀양시 숙박
2일	7월 6일 (금)	09:00→12:30 13:30→16:30	오전: 생태문명귀양국제포럼 일정 안내 오후: 생태문명귀양국제포럼 참가 등록 및 준비	귀양시 숙박
3일	7월 7일 (토)	9:00→12:00 13:00→17:00	오전: 생태문명귀양국제포럼 개막식 참석 오후: 귀주민족대학 학술행사(*박경철 박사 발표) 저녁: 생태문명귀양국제포럼 서밋회의 참석	귀양시 숙박
4일	7월 8일 (일)	9:30→12:00 14:00→18:00	오전: 귀주성 상이시(興義市)로 이동 오후: 분과 학술회의(*정옥식 박사 발표)	상이시 숙박
5일	7월 9일 (월)	9:30→12:00 14:00→18:00	오전: 상이시 만병림 생태마을 시찰 오후: 귀양으로 복귀	귀양시 숙박
6일	7월 10일 (화)	07:10→09:45 12:15→15:20	귀양 → 상하이(MU9460) 상하이 → 인천(MU5033)	귀국

4. 2018 생태문명귀양국제포럼 개요

항 목	내 용
기간	2018년 7월 6일(금)-8일(일)
장소	중국 귀주성 귀양시(귀양국제생태회의중심) 및 각 시현 지역
주제	생태문명의 신시대로 나아가자: 생태우선, 녹색발전
주요 일정	<p>7월 6일-8일: 서밋회의, 주제 발표, 기타 행사</p> <p>7월 7일 오전: 개막식</p> <p>7월 8일 오후: 폐회식</p> <p>7월 6일: 국제자문회 위원 회의</p> <p>7월 6일-8일: 생태문명귀양국제포럼 10주년기념활동</p>
포럼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문명귀양국제포럼은 중국 귀주성이 가장 먼저 제기해 조직됐으며 중국 정부가 인준한 유일한 생태문명 주제의 국가급 국제회의임 ■ 본 포럼에서는 정부, 산업계, 학계, 언론계, 그리고 기타 각계 정책 결정자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생태문명의 이념을 전파하고,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며, 정책의 실행과 완성을 촉진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함 ■ 또한, 생태안전의 도전에 대응하고, 국제, 지역 그리고 각계의 아젠다를 형성해 자원 절약, 환경우호형 사회를 건설해 인류생태문명 건설 발전 과정 추동함

Ⅱ. 주요 활동 내용

1. 2018 생태문명귀양국제포럼 개막식

○ 장소

- 귀양생태문명국제회의중심

○ 일시

- 7월 7일 10-12시

○ 주요 참석자

- 쑨춘란(孫春蘭) 국무원 부총리,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영상 축하메시지), 쑨즈강(孫志剛) 귀주성 당서기, 류치(劉奇) 강서성 당서기, 다이빙궈(戴秉國) 전 외교부 부부장, 하토야마(鳩山) 전 일본 수상, 올라프르 그림슨(Olafur R. Grimsson) 전 아이슬란드 대통령, 브레텔(Yves Leterme) 전 벨기에 수상 등

○ 주요 발언 내용

1) 쑨춘란(孫春蘭) 국무원 부총리(시진핑 총서기 축하 대독)

- 중국공산당 제19차 인민대표대회에서 생태문명과 생태문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처음으로 논의함. 또한 중국 헌법에 생태문명과 아름다운 중국을 반영해 중국이 생태문명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짐
- 생태문명귀양국제포럼은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음. 5년 전에 국가급 포럼으로 격상되면서 위상이 강화됐으며 현재는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포럼으로 자리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아름다운 중국이 ‘중국몽’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이상은 현재 국가적인 동력과 방향이 설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 인류는 자연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는 자연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국제간 연대와 협력체계를 만들어 인류공동체 문명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임.

2) 쑨즈강(孫志剛) 귀주성 당서기

- 시진핑 주석은 주석으로 취임한 해인 2013년부터 생태문명귀양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귀주성정부가 이 포럼을 잘 이끌어갈 것을 지시함.

- 이번 포럼에는 시진핑 주석의 축하 메시지, 유엔사무총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비롯해 국제기구, 각국 정부, 그 외 유수 기관과 대학에서 총 2426명이 참석함.
- 귀주성은 인구가 약 4000만 명으로 중국 내에서 낙후한 지역이지만 산림면적이 55%이고 중국 내 자연유산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생태문명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히고 있음.
- 현재 생태문명은 중국의 새로운 발전이념이 되고 있고 이러한 이념은 사람들의 사고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음. 경제체계에서도 생산, 자원, 자본, 기술 등 모든 방면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근본적으로 인민의 복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생태문명은 새로운 시대의 중요 발전 토대가 될 것임.

3) 올라프르 그림슨(Olafur R. Grimsson) 전 아이슬란드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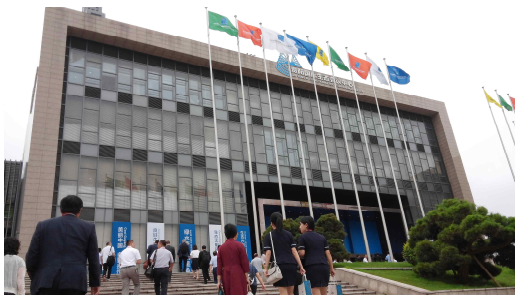
-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이슬란드에서 느끼고 있음. 현재 아이슬란드에 분포된 빙하들이 빠르게 녹고 있음. 이는 인류에 대한 위협이자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음. 히말라야산맥의 만년설은 2015년이 되면 50%가 소실될 것으로 예측됨. 이렇게 되면 아시아 주변 지역의 강과 하천뿐만 아니라 식량생산과 사람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견됨.
- 지난해에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오염에 의해 사망함. 사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따라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전 세계가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 이는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도 중시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생태문명포럼은 인류의 생태와 환경을 복원하는 귀중한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중국이 녹색발전의 신념과 목표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럼을 통해 인류가 협력해 나가길 기대함.

4) 비브 레텀(Yves Leterme) 전 벨기에 수상

- 2016년 파리기후협약은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유럽국가들, 중국, 미국 등 강대국가들의 리더십으로 이뤄진 것임.
- 이러한 배경에는 인류가 지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의식이 밑바탕이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만큼 앞으로는 유럽과 중국 주도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5) 하토야마(鳩山) 전 일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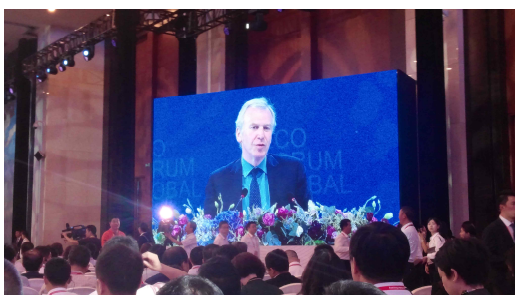
- 2009년부터 개최된 생태문명귀주국제포럼은 아시아 유일의 국제적 포럼이며 시진핑 주석의 생태문명 건설을 실현하는 구심체라고 할 수 있음.
- 춘추전국시대 묵자는 겸애와 우정을 강조했음. 즉, 전쟁을 없애고 사람은 존중하고 우정을 나누는 사회를 최고의 가치로 여김. 이는 곧 세계 평화와도 연결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음.
- 동아시아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함께 나무를 심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할 것임. 하토야마 전 수상도 중일 청년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지구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왔음. 이를 통해 향후 2020년까지 지구 온실가스를 50% 감축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구축에 힘을 쓰고 있음.
-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을 파괴했지만 중국은 이를 강화하고 있어 고맙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함. 중국이 앞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자연에너지를 강화한다면 농가소득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함.
- ‘아시아 슈퍼 그리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국가 간 전력을 상호 나눈다면 아시아의 평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임.



생태문명귀주국제포럼 대회장



순춘란 국무원 부총리 축하



레딤 전 벨기에 수상



하토야마 일본 전 수상

[그림 1] 대회 환영사 및 축하

2. 2018 생태문명귀양국제포럼 제1분회

○ 장소

- 귀주민족대학 15호 회의중심

○ 일시

- 7월 7일 14-17시

○ 주요 참석자

- 우따화(吳大華) 귀주성사회과학원장, 장쉐리(張學立) 귀주민족대학 당위원회 서기, 원테진(溫鐵軍) 중국인민대학학술위원회 부주임 겸 본건농림대학신농촌발전연구원 집행 원장, 양툰(楊團) 중국사회과학원 사회정책연구중심 고문, 리짜오후(李召虎) 중국농업대학 상무부교장, 황청량(黃承梁) 중국사회과학원 생태문명연구싱크탱크이론부 주임, 두샤오판(杜曉帆) 복단대학 국토 및 문화자원연구중심 주임, Luk Tak Chen 홍콩중문대학 위니스 사회사업중심 교수, 향더핑(向德平) 무한대학 중국 빈곤퇴치 발전연구중심 주임, 레이밍(雷明) 북경대학 빈곤지구 발전연구원 원장, 황령리(黃伶俐) 싱가포르 남양이공대학 연구원, 리화홍(李華紅) 귀주성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부소장,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 전 세계 빈곤퇴치 시각에서 본 중국의 경험
- 중국정부의 빈곤퇴치 정책 내용 및 향후 방향
- 중국 농촌의 빈곤퇴치와 향촌진흥 전략
- 귀주성 산간지역 농민들의 소득 보장 방안
- 홍콩의 생태자원 관리 경험과 협력 방안
- 생태가치의 자원화 및 시장 진출 방안
- 생태문명 전환에서의 향촌진흥과 도농교류
- 본 회의에서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한국 농민의 소득 실태를 분석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제안함.



[그림 2] 제1분회(박경철 박사 발표: 귀주민족대학)

3. 2018 생태문명귀양국제포럼 제2분회

○ 장소

- 귀주성 싱이시(興義市) 부강국제회의전람중심
- 귀주성 귀양시에서 버스로 약 5시간 이동 거리

○ 일시

- 7월 8일 14-17시 반

○ 주요 참석자

- 우따화(吳大華) 귀주성사회과학원장, 쉬펑룬(許風倫) 귀주성 싱이시 당서기, 위엔지엔린(遠建林) 싱이시 시장, 원테진(溫鐵軍) 중국인민대학학술위원회 부주임 겸 본건농림대학신농촌발전연구원 집행 원장, 양탄(楊團) 중국사회과학원 사회정책연구중심 고문, 쉰샤오시아(索曉霞) 귀주성사회과학원 부원장, Luk Tak Chen 홍콩중문대학 위니스 사회사업중심 교수, 천쯔융(陳志永) 중국 문화관광부 중국향토사회연구중심(귀주)집행주임 겸 귀주민족대학 사회건설과 반빈곤연구원 교수, 정옥식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 귀주성 싱이시 반빈곤정책의 추진 방향(싱이시 반빈곤간부학원 설립 등)
- 산림생태 보전을 통한 농가 소득 창출 방안
- 산림생태 보전을 통한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방안
-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한 농업협작사의 역할
- 한국의 농업생태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정옥식 박사 발표) 등



[그림 3] 제2분회(정옥식 박사 발표: 귀주성 흥의시)

4. 2018 생태문명귀양국제포럼 현장 참관

○ 장소

- 귀주성 싱이시(興義市) 만봉림(萬峰林)관광구 어룡촌 생태습지시범지

○ 일시

- 7월 9일 오전 9-12시

○ 주요 참관 내용

- 싱이시 만봉림 관광구는 ‘만 개의 봉우리’가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 이름이며 귀주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도 유명한 관광지임.

- 만봉림 관광구 안에 위치한 어룡촌은 총 286가구 640명이 거주하고 있음. 싱이시는 시진핑 주석의 아름다운 중국 건설 이념에 따라 이 관광구에 있는 어룡촌 등 8개 마을에 농촌환경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오수생태정화습지시범지를 조성해 생태환경적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오룡촌 오수생태정화습지시범지의 습지 면적은 600평방미터이지만 이 마을 면적 2570평방미터의 오수를 처리하고 있음. 생태습지에는 부레옥잠 등 다양한 수생정화식물이 식재되어 있어 마을에서 배출한 오수가 이곳으로 들어와 정화되어 다시 농경지와 하천으로 배출되고 있음.
- 만봉림 관광구 내 조성된 생태습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학습과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음.



[그림 4] 싱이시 어룡촌 오수생태정화습지시범지 및 만봉림

Ⅲ. 전체 평가 및 과제

1. 이번 출장은 귀주성사회과학원 초청으로 참가하게 됨. 참가 전에는 그냥 일개 포럼이겠거니 하고 참가를 했는데 학술포럼의 올림픽이라고 할 만큼 그 규모와 내용이 엄청나게 큰 규모였음. 7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 개회식에 각 국가와 지역에서 온 수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참가함.
2. 개회식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유엔사무총장의 축전이 있었음. 순춘란 국무원 부총리가 시 주석의 축사를 대독했고 유엔사무총장은 축하 영상을 보내줌. 아이슬란드와 벨기에 전 대통령, 일본 하토야마 전 수상, 귀주성 당서기, 강서성 당서기 그 외 열 명도 넘는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있었고 축사만 2시간을 넘길 정도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함.
3. 이번 포럼은 메인 행사장인 귀주생태회의중심뿐만 아니라 각 대학과 귀주성 각 지방정부 등에서 수십 개의 발표와 토론회가 있었음. 국가급 포럼이다 보니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귀주성의 각급 정부가 총동원되어 이 행사를 개최하는 것 같았음. 당이 앞서고 정부는 따라가는 중국의 일사불란한 지도체계. 중국공산당의 힘을 절감하는 행사였음.
4. 이번 포럼에는 중국내외 수많은 학자들, 특히.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의 생태환경, 농촌개발, 농촌사회 관련 유수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음. 국내외 유수 학자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었던 흔치않은 기회였음. 사람이 많고 발표시간이 짧아 심도있는 논의는 못해 아쉬웠지만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유명 인사를 만나는 것도 흔치 않는 기회였음.
5. 대략 계산해도 몇 십억 정도는 들어갔을 이 포럼을 보면서 이렇게 큰 행사가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만큼 생태문명 건설과 빈곤퇴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10회째인 이 포럼을 5년 전부터 국가급 포럼으로 격상시켜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정부가 이 포럼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있었음.
6. 이번 포럼을 보면서 생태문명 건설과 빈곤퇴치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음. 지난 19차 공산당인민대표에서 생태환경 개선

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헌법에 포함시키면서 성장과 환경을 조화시키고 빈곤문제를 해결해 중국몽을 실현한다는 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7. 이번 포럼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青山绿水是金山银山"이라는 말이었음. 이 말은 시진핑 주석이 당대표대회에서 한 말로 글자 그대로 청산녹수가 금이고 은이라는 뜻임. 즉 아름다운 자연이 자산이라는 것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빈곤층의 대부분은 귀주, 운남, 광서 등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 많은 학자들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어떻게 가치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함.
8. 국가급 동원형 포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만큼 중국의 현실은 절박하고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음. 우리보다도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정부가 이제는 국가주도의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생각을 했음. 정부주도의 한계도 있지만 이 거대한 중국을 바꿔나가는 데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할 거라는 판단에서임.
9. 이번 포럼에 함께 참가한 단국대 김호 교수는 "한국의 유기농업과 충남도의 3농혁신"을 발표했고 우리 연구원 정옥식 박사는 "충남도 농업환경실천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고 본 출장자는 "농민기본소득 보장과 농업농촌 가치 보호"에 대해 발표했음. 본 출장자 발표 후 홍콩중문대학 한 교수는 언제부터 이런 연구를 했냐고 물어봄. 농민기본소득이 중요한데 아직 중국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는 얘기를 나눴음.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개념의 논의가 확산될 거라 믿고 있고 지금도 따지고 보면 이런 개념의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음.
10. 이번 포럼에 함께 참석한 김호 교수, 정옥식 박사와 낮에는 행사에 참여하고 밤에는 자유롭게 호텔 등에서 한국의 생태환경문제 그리고 농업농촌문제 얘기를 나눔. 중국의 국가주도형 생태문명 전환을 우리가 따라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우리도 이제는 큰 변혁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음. 이런 측면에서 이번 생태문명귀양국제포럼은 여러 모로 많은 시사점과 생각거리를 안겨준 시간이었음.